

오쉬사랑 8월편지



7월 한달은 어느 코로나라는 외계인 나라에 다녀온 듯~~
마치 전장터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쉬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듯, 시골로 확산되는 거 같습니다.
시골 사역자들로부터 산소발생기와 약품 도움 요청이 많아서...
그제는 시골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코로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들을 위로차 점심을 풍성하게 먹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짜인줄 믿었는데 걸려서 죽게 아파보니 진짜네!!" 하면서 스스로들 배꼽을 잡고 웃
습니다...^^

시작하기전 찬양, 기도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찬양, 다른기도임을 느낍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자들의 간절함과 목마름이 절절이 베어있는 느낌!

김 형근 선교사님이 코로나 방역교육하고, 팀원들이 약품, 산소배출기 사용법과 복음사역등을 교육하
고, 각 지역마다 산소발생기,방역보호복, 고글, 마스크,장갑, 세정제등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시골 구석구석에 이들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해 주는게 하나도 없지만, 이때에 믿는자들이 빛으로 일어나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좋은 소
식을 전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돈을 보내서 물품들을 사게 도와준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게아니라 반대로 구원의 때입니
다!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렘29:11)"

이렇게 외치고 격려하며 이들을 시골로 돌려보냈습니다.

